

수입 벙커C유 시장점유율 6.6%

수입기업 판매 급증 ... 영업환경 악화로 휘발유 판매는 고전

석유 수입기업들의 벙커-C유 판매량이 2003년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업계에 따르면, 2003년 1-8월 국내 석유 수입기업들의 벙커-C유 판매량은 총 470만배럴로 2002년 1-8월 255만배럴에 비해 84.3% 급증했다.

이에 따라 같은 기간 석유수입기업의 벙커-C유 시장점유율도 전년동기 3.3%에서 6.6%로 높아졌다.

벙커-C유의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전체 유종의 시장점유율도 전년동기 6.4%에서 7.1%로 올라갔다.

그러나 휘발유의 시장점유율이 6.7%에서 4.5%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휘발유와 경유, 등유 등 경질유 제품은 수입기업 시장점유율은 약간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.

석유업계 관계자는 “최근 원유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로 수입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돼 휘발유 등 경질유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졌지만 여타 경질유와 달리 대리점이나 직매처에 장기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판매가 쉬운 벙커-C유의 점유율은 급증해 전체 점유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설명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13>